

뉴 노멀 시대 기점·소악도 12사도 순례자의 길 활성화 방안

김농오 목포대 명예교수
이창훈 목포대 조교수
최석만 MIDWEST대 교수
이용규 백석대 교수

I. 서론

코로나19는 경제, 교육, 정치, 종교 등 사회의 각 분야에 영향을 주었으며, 각계의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패러다임은 과거와 매우 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듯 코로나19 이후 바이러스가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는 ‘뉴노멀(The New Normal)’의 시대가 열렸다(아산정책연구원, 2015).

코로나 19로 인한 뉴노멀 시대는 일상생활 수칙으로 자리 잡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을 비롯해 인간의 행동이 바이러스로 인해 새롭게 형성된 기준을 말하며, 코로나 19가 새롭게 만들어 낸 기준과 변화는 종교적 부분에도 영향을 미쳤다(이태욱, 2021). 코로나19는 특히 그동안 믿어왔던 종교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는 영적 각성의 계기가 되고 있으며,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은 대면이 불가피하여 ‘언택트 사회(untact society)’ 혹은 온라인 접촉이 늘어나는 현상을 반영하여 ‘온택트 사회(ontact society)’로 지칭되고 있다(이용상, 2020).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관광자원 방문 및 체험 등 대외활동이 제한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가상현실(VR) 기법이 산업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관광 분야에 적용 가능성이 제고되는 상황이다. 실감형 가상현실(VR) 기술을 통해 비대면 방식의 관광콘텐츠 분야를 활성화가 가능하므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으로 제시될 수 있다.

전라남도에서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24개 섬을 선정해 주민은 살고 싶고 관광객은 가고 싶은 지속가능한 섬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가고 싶은 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고 싶은 섬 선정 이후 기점·소악도의 방문객은 2016년 기준 2,537명에서 2019년도에 4,460명으로 76%가 증가하였다(전라남도 섬해양 정책과, 2020). 그러나 ‘가고 싶은 섬’ 사업에 의한 전라남도 브랜드 시책의 본질과는 다르게 마을 조합구성원 간의 내부적인 문제와 선정 이후 유지관리 부분에서의 부작용이 발생¹⁾되는 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1) [http://www.nam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97390\(2021. 01. 31.\)](http://www.nam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97390(2021. 01. 3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지순례의 목적과 지역사회 관광 활성화의 균형 잡히고 지속가능한 보존·활용을 위해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또한 VR 콘텐츠 제공 사례를 통해 기점·소악도 문준경 순례자의 길을 방문하는 잠재적 관광객의 만족을 위한 실증적인 활용방안을 논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자 한다.

II. 본론

1. 기점·소악도 순례자길 현황

전라남도의 낙후된 섬 지역의 자연환경 보존 및 관광기능 도입으로 지역사회 관광 활성화 증진을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전라남도는 2014년 ‘가고 싶은 섬’ 10개년 계획 안에서 24개 섬 개발 및 활용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라남도의 ‘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으로 시작한 순례자의 섬은 대기점도에서 소기점도, 소악도와 진섬까지 이르는 12km의 길을 순례길로 정하고, 이들 섬에 12개의 작은 예배당을 지었다. 12사도 작은 예배당 조성은 국내외 조형예술작가 11명²⁾이 참여해 만든 작은 예배당은 각기 다른 모양과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는 순례의 의미를 특별하게 하는 예수의 12제자를 상징하고 성경내용을 통합한 응용작품으로 섬을 방문하는 순례자의 심리적 안정과 지점별 랜드마크적 경관요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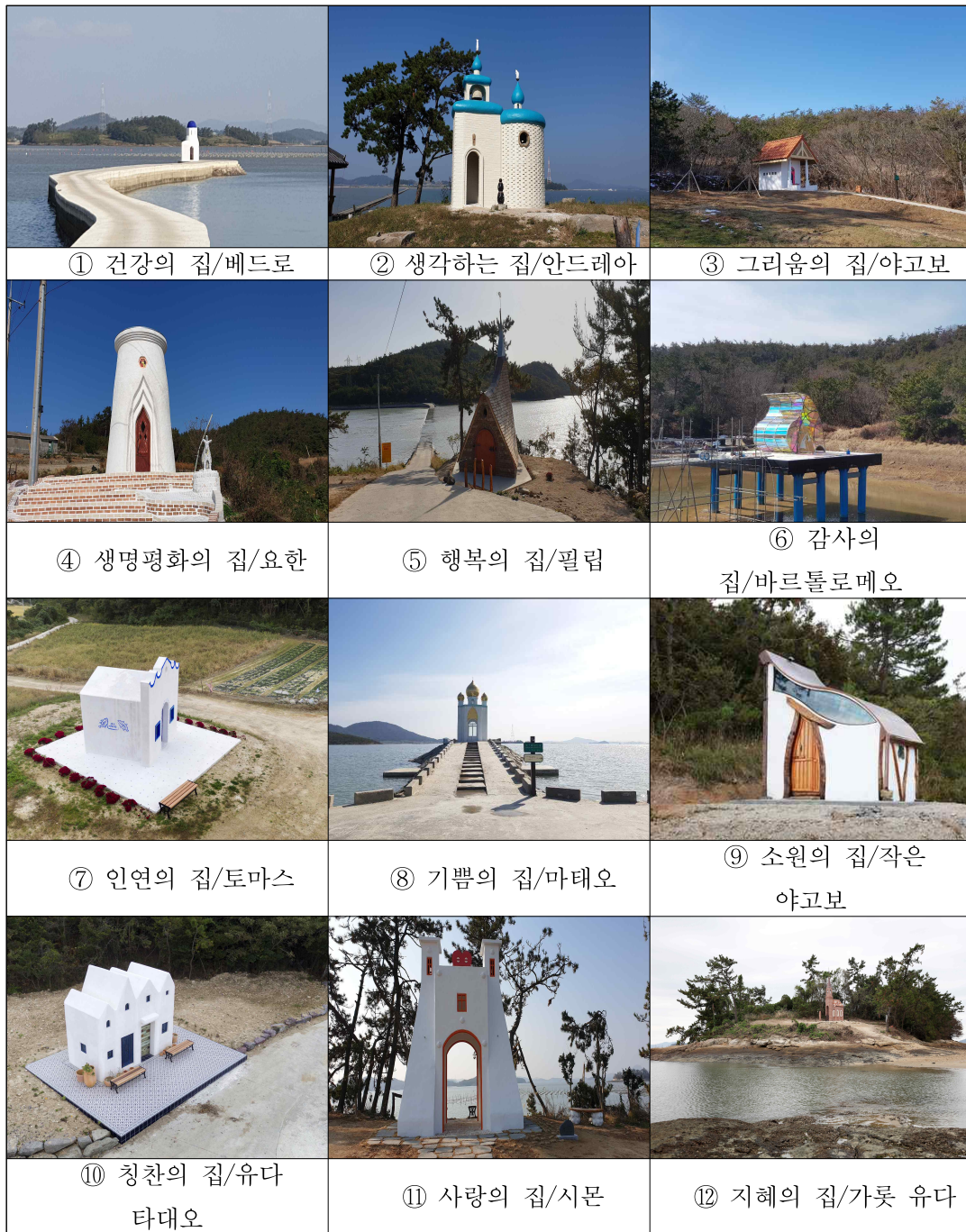
기점·소악도 순례자 길은 만조시에는 통행로가 물에 잠기고 간조시에 섬끼리 연결되는 국내에서 가장 긴 노둑길³⁾이 위치하는 입지적 자연 자원의 특징을 갖는다. 노둑길은 주민들이 섬들 간에 왕래를 위하여 갯벌에 돌을 놓아 만든 징검다리 형태의 길로 북쪽에서부터 신추도-병풍도-대기점도-소기점도-소악도-진섬이 일자형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중 신추도와 병풍도를 제외한 지역이 ‘12사도 순례자의 길’에 해당한다.



[그림 1] 순례자의 길 예배당 위치도

2) 12사도 작은 예배당 조성은 국내 김윤환, 이원석, 박영군, 강영민, 손민아, 김강 6명, 국외 파코(PAKO), 브루노 프루네(Bruno Fournee), 장미셸 후비오(Jean Michel Rubio), 아르민도 마누엘 로페스 로드리게스(Armino Manuel Lopex Rodrigues), 실뱅 페리에(Sylvain Perrier) 5명, 총 11명의 건축미술작가가 참여하였다.

3) 병풍도에서 대기점도까지 975m, 대기점도에서 소기점도까지는 217m, 소기점도에서 소악도까지는 373m의 노둑길이 이어지며, 다시 두 개의 소악도를 연결하는 노둑길은 241m이다. 총 길이 약 1,770m로 병풍도에서 신추도를 잇는 210m 합치면 병풍도 내에 위치한 노둑길의 길이는 1,980m에 해당한다.



[그림 2] 가고 싶은 섬 「기점·소악도」 예배당 조성현황

2. 기점·소악도 순례자길 이용 실태 및 문제점

(1) 장소의 정체성 혼란

성지순례길을 테마로 하여 조성된 관광지는 ‘성지순례’라는 종교의식을 배경에 두고 성스러운 행위를 기리는 목적과 여행이라는 관광의 요소를 배제할 수 없는 경계에 위치

하게 된다. 즉 문준경 순례자길을 방문하는 사람은 신안 기점·소악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소개한 다양한 관광홍보 자료에 의해 찾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준경 순례자의 행위와 과거 행적에 초점을 맞추어 순례자의 길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역사 자료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신안군과 기독교 분야에서 문준경 전도사의 행적에 대한 실증적 자료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주변 교우관계, 당시 사회모습을 반영하는 문화상(文化像) 등을 스토리텔링화하여 성지순례라는 원론적인 목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지순례가 배제된 관광지로 목적이 이탈하게 되면 기점·소악도로 향하는 영적인 갈등에 대한 추구와 열망은 비록 유지되더라도 경관을 채워나가는 행위와 방법은 다양해질 것이며, 순례자의 길의 명성은 쇠퇴할 것이다.

(2) 지역주민의 관광 개발의식

관광은 거주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물리적 이동과 체재 등을 포함한 복합적 양상을 지닌 현상을 띄고 있으며, 관광지의 속성을 경제적 속성, 브랜드 속성, 환경 속성, 인프라 시설활동 속성, 여행객의 속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Hankinson, 2005). 특히 차별화된 관광지가 되기 위한 속성은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이 관광개발 의식이나 경제성 및 제약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것이다(김기호·정기환, 2010). 신안 12사도 순례자의 길은 일반 관광지와는 다른 문준경 순례자의 행적이 기반한 브랜드 속성을 강조해야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 조합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일반 관광지의 개발의식이 적용되고 있어 관련 전문가의 교육 등을 통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3) 활용에 의한 경관 훼손

순례자의 길에서 보이는 이미지는 걸어가는 여행객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형상화된 순례자의 이미지는 과거 유럽시대 도보를 이용한 저소득층의 모습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신분이 높거나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은 말이나 당나귀를 이용하기도 하였고 시작과 끝 일부 구간에서만 맨발로 걷고 순례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전라남도 신안군 기점·소악도 홍보자료에 의하면 12사도 제자를 형상하고 순례의 의미를 부여한 상징물을 연계한 순례자길은 약 12Km이며, 만조시간을 피할 경우 약 3~4시간이 소요된다. 순례자길 탐방은 크게 도보와 자전거 이용객이 많으며, 섬 내부에서도 게스트하우스와 2번 안드레아 예배당 앞에서 자전거를 대여하여 이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있다. 현재는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관광객 수요가 낮은 상황이지만, 수용인원이 평소보다 많게 되는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도보로 이용하는 탐방객과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의 동선이 겹치게 되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은 크게 방문객을 통제하는 경우와 통제하지 않고 내부 동선의 형태와 기능의 조정,

두 가지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방문객을 통제할 경우는 기점·소악도가 지닌 자연자원을 유지하게 되지만, 내부 동선의 형태와 기능을 조정할 경우는 경관의 훼손 혹은 변형을 가져올 수 밖에 없게 된다. 내부 동선의 형태와 기능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의 사례로는 보도와 자전거 도로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있으며, 일부 도로 구간을 증폭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가 어렵다.

3. 기점·소악도 순례자길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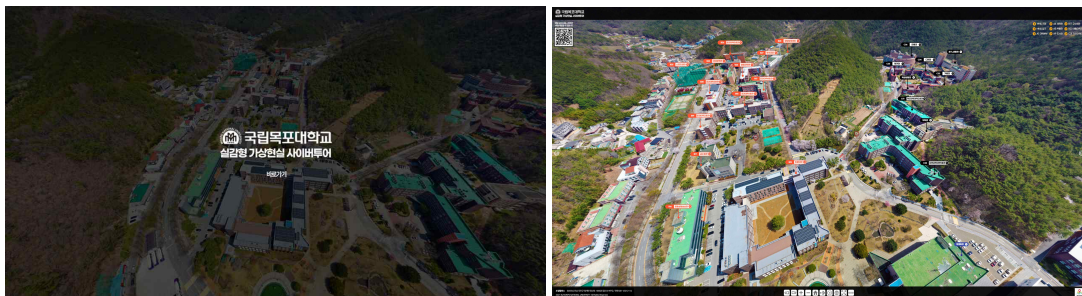
(1) 역사자원 발굴

해양관광지 속성의 매력성, 정보성, 편의성이 지각된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중에 정보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외지의 방문은 개인 경험의 장소를 평가하는 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Huang et al.,2017), 접근성과 개인의 변수는 목적지의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 혹은 방문한 상태에서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단적 가치에서 평가되는 부분이 다소 영향력이 크다. 따라서 기점·소악도 12사도 순례자의 길의 정보와 관련된 콘텐츠 개발과 플랫폼 구축에 활용이 가능한 역사·문화 자원의 발굴이 중요하다.

(2) 경관자원 콘텐츠화 및 아카이빙

코로나19로 인한 관광분야의 패러다임은 급변하여 뉴노멀 시대의 관광의 형태와 방법이 새롭게 등장하고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의 제한은 자연스럽게 국내 여행으로 집중되었고, 온라인 가상현실 콘텐츠를 통한 실감형 AR/VR 관광기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드론을 이용한 항공 VR과 지상 VR을 결합한 실감형 가상현실 파노라마 프로그램 기술을 활용하여 12사도 순례자의 길을 조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작하고, 3D 디지털 트윈 방식의 가상현실 구현 가능한 측량 프로그램 기술을 활용하여 12제자를 형상화한 건물들을 가상현실 플랫폼 제작하여 언택트 관광 콘텐츠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림 3] 국립목포대학교 실감형 가상현실 사이버투어 서비스 화면
가상현실 샘플 링크주소 : <http://snakecrap1.dothome.co.kr/mnu/mnu.html>

제작된 ‘12사도 순례자의 길’을 디지털 콘텐츠 자료를 신안 관광 홈페이지 및 블로그, SNS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순례자의 길을 포함한 기점·소악도 일원 경관자원 고해상 항공지도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능하다. 특히 항공촬영된 측량 정보 DB값은 순례자의 길 경관변화 과정 기록에도 활용할 수 있다.



[그림 3] 울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군 실시간 항공지도 및 3D 모델링 이미지
클라우드 링크주소 : <https://url.kr/ntr451>

III. 결론 및 제언

기점·소악도는 100여명 남짓의 주민이 천혜의 섬경관을 유지하며 반농반어로 살아가는 전형적인 도서마을로, 문준경 전도사에 의한 주민 80%가 개신교 신자인 점을 착안해 순례자의 섬으로 개발구상을 잡아 ‘가고 싶은 섬’ 가꾸기를 조성한 사례이다. 기존 국내에서는 어촌 및 섬 개발 사례가 다양하게 진행되었지만 주민공동체 생활문화를 반영하면서 종교를 접목한 컨셉 때문에 종교인들의 순례 여행지로 명성이 높아지는 장소이다.

첫째, 기점·소악도 순례자길이라는 장소적 정체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역사·문화·경관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현재 기점·소악도가 갖는 성지순례와 섬관광이라는 두 가지 문화적 요소를 활용함에 있어, 기존 섬지역의 활용과는 차별성을 갖는 종교 순례지라는 특징적인 강점을 살려 장소의 안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문준경 순례자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유산 및 인물에 중점한 스토리텔링을 공간정보로 기록하고 자료화하여 향후 지속적인 보존·활용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기점·소악도 순례자길 관련 자료를 디지털 콘텐츠화하여 지형, 문화, 관광 분야 활용할 아카이빙 구축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기점·소악도 순례자의 길을 테마로 한 순례객 유치 및 종교적 정체성 강화를 위해 실감형 가상현실(VR)을 접목한 콘텐츠 활용 가능성을 제고 하여야 한다. 그 중 항공 VR을 통해 체험하는 순례자의 길 관련 경관자원의 메조스케일 단위의 시각적 입체감을 확보가 가능하며, 대상지 및 주변 경관에 대한 공간이해가 용이하다.

셋째, 길이라는 선적(線的)인 유형의 순례지에서 기점·소악도 순례자의 길이 갖는 연속성과 방향성을 고려한 이용행태를 고려한 경관계획 및 관리 기준마련이 요구된다. 순례자의 길이라는 동선을 따라 일정 폭원 내의 경관요소를 포함하여 향후 경관 보존·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고려하여 경관계획 영향검토 대상 구역으로 설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기반한 기점·소악도는 순례자의 길을 포함한 주변 환경 보존과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민·관·학 참여 형태의 연구진행은 반드시 중요하며, 섬 전체의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섬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 형태에 대한 역량강화에 대한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기호·정기한 (2010). “해양관광지의 속성이 지각된 가치, 고객만족,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25(5). 123-141
- 송은영 (2021). “언택트 시대 4차 산업 혁명의 변화에 따른 커피산업의 동향 SWOT 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이태욱 (2021).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를 위한 설교 신학 정립에 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원. 석사학위논문. 14-15
- 최강 외 (2015). “2016 아산 국제정세 전망, 뉴노멀” 아산정책연구원. 9.
- Hankinson, G (2005). “Destination Brand Image”. Journal of Service Marketing. 19(1): 24-32.

논문초록

성지순례는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어떤 거룩한 땅을 찾는 자발적이고 사심 없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에서 신안지역의 기점·소악도 12사도 순례자의 길이 갖는 장소는 특별성을 갖는다. 문준경 순례자의 행적을 주제로 조성된 관광지는 그리스도적 성스러운 행위와 낙후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광활성, 모두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결국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는 순례자의 길에 추구하는 목적과 주변 우수경관의 보존·유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순례자의 길이라는 종교적 성격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관광활용이 가능한 방안을 찾고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ICT에 기반한 가상현실 접목을 위한 대안을 논하였다.

논 찬 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뉴 노멀 시대 기점·소악도 12사도 순례자의 길 활성화 방안	발표자	김봉오, 이창훈, 최석만, 이응규
		논찬자 (소속)	허 준 (경관문화연구소 산천재)

전라남도의 ‘가고싶은 섬’ 조성사업으로 시작한 순례자의 섬은 대기점도에서 소기점도, 소악도와 진섬까지 이르는 12km의 순례길을 지정하고 이들 섬에 12개의 작은 예배당을 지어 12사도를 상징하고 성경내용을 통합한 응용작품이다. 이 길은 순례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지점별 랜드마크적 경관요소 역할을 한다. 이곳이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리티의 발현이란 면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공간을 창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성지순례길 조성은 성지순례라는 성스러운 행위와 여행이라는 관광의 틀 속에서 양자 간의 괴리가 생기며 이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모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관광객에 의해 원치 않았던 훼손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바

우선 저자들은 기점·소악도 순례자길이라는 장소적 정체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역사·문화·경관연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오랜 시간을 두고 꼼꼼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점·소악도 순례자길 관련 자료를 디지털 콘텐츠화하여 지형, 문화, 관광 분야 활용할 아카이빙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도 적극 지지하고 싶은 내용이다. 다만 순례객 유치 및 종교적 정체성 강화를 위해 실감형 가상현실(VR)을 접목한 콘텐츠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을 듯하다.

물론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AR/VR의 중요성을 인지 못할 사람은 없겠지만 스페인 산티아고를 걷는 사람들이 현대문명의 이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험한길을 묵묵히 걷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아날로 그의 가치와 순수한 성경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길이라는 선적(線的)인 유형의 순례지에서 기점·소악도 순례자의 길이 갖는 연속성과 방향성 그리고 이용행태를 고려한 경관계획 및 관리 기준마련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한다. 이 중요한 공간에 우리가 파라다이스로 생각하는 소규모 에덴동산을 요소요소 조성해 놓는 것이 어찌면 조경인들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기독교학에서의 소명이 아닐까 싶다.